

태재 아카데미는 인류 공영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변화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2015년 12월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여시재가 설립됐으며,
2021년 11월 태재 아카데미로 개편했습니다.

혁신적 교육기관 태재 대학과 더불어
인류 공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태재 아카데미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최고의 싱크탱크 및 정책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정파를 초월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제세미나와 포럼, 출판 활동 및 국내외 유력 매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태재 아카데미의 연구 성과가 공감대를 얻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재는 '클 태(泰)'와 '집 재(齋)'로,
태재 아카데미는 인류 공영을 위해 동시대인 모두의 지혜를 아우르는
'큰 집' 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속불가능 극복하는 지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핵확산과 테러리즘 등
지속불가능에 직면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대전환

중국의 부상으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을
협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

기술 혁명이 인류를 위해 선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융합된 시대 가치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동양과 서양이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의 전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는 공멸의 길로 빠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타협과 상생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중국의 변화

세계 변화의 핵심에 중국의 부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 변화의 양상을 깊이있게 분석합니다.

동북아 협력

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세계 화합과 번영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한반도 미래산업

미래 변화의 동력을 탐구하여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은 무엇인지 탐구하고,
한반도의 정체성을 살린 새로운 산업을 발굴합니다.

초일류 역량 확보

한반도가 세계의 변화를 이끌려면 국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초일류 사회로 진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안합니다.